



아이쿠우 크라크라 3 in 1 멀티체어

# “유아 댄 식탁 의자, 좀 크면 책상 세트로 쓰세요”

“유아용품은 아이가 빨리 성장하기까  
잠깐 쓰잖아요. 품질 좋은 제품을 오래  
쓰게 했습니다.”

한샘에서 영업맨으로 일하다가 2012  
년 말 창업한 인경진 아이쿠우 대표는 다  
양한 가구 제품을 판매한 경험을 살려 유  
아·어린이용 가구를 제작한다. 그는 소  
재 및 구조의 안전성,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과 색상,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실용성을 모두 살려 크

6개월부터 30개월까진 식탁의자  
4~5세부터 책상과 의자로 사용

다리 흔들리지않게 발받침 마련  
플라스틱몸체 돌출부 곡선 처리



인경진 아이쿠우 대표가 대전 충남대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실에서 의자를 분리·조립하는 시범을 보이  
고 있다.

라크라3 in 1 멀티체어를 생산하고 있다.

◆아이 따라 같이 크는 의자

아이쿠우가 판매하는 멀티체어는 생후 6  
개월부터 6세까지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의자다.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는  
6개월부터 30개월까지는 식탁 의자로 활  
용할 수 있다. 하단 거치대에 의자를 올려  
설치하면 식탁 높이에 맞다. 18개월 이후  
에는 의자에 식판(스판)을 끼워 아이 전용  
식탁으로 쓰면 된다. 아이가 그림을 그리  
거나 글씨를 쓰는 4~5세부터는 거치대 거  
치대를 책상으로도 쓸 수 있다.

인 대표는 멀티체어가 국내보다 중국  
과 유럽에서 먼저 널리 사용됐다고 설명

했다. 제품의 핵심은 ‘안전성’과 ‘편의성’  
이다. 그는 “유아용품은 용도에만 충실하  
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며 “변형하기 쉬  
우면서도 아이들이 발로 차고 넘어뜨려  
도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말  
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유럽안전기준  
(EN-14988)을 획득하고 한국 KC인증을  
받기 위해 긴 시간 노력한 이이다.

아이쿠우 멀티체어는 아이의 안전을 쟁  
기려는 세심함이 돋보인다. 하이체어(하  
단위 의자 설치)로 쓸 경우 아이를 단단  
히 잡아주기 위해 다섯 방향에서 묶어주  
는 5점식 벨트를 사용하고 있다. 아이가 안  
정적으로 자세를 잡도록 발받침도 마련했

다. 모든 플라스틱 몸체의 돌출부는 아이  
들이 부딪혀도 안전하도록 곡선으로 처리  
했다. 그는 “하이체어로 사용할 경우 측면  
과 후방 전도(넘어짐) 테스트는 일반 의자  
와 달리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  
다”며 “플라스틱 몸체와 탈부착이 쉬운  
패브릭 등반이는 모두 유해 화학성분 테  
스트(KC 시험인증)를 통과했다”고 강조  
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식판 위치 조절,  
등받이 각도 조절도 자유롭다. 인 대표는  
“유아용품은 사용기간이 짧고 가격이 비  
싼데 멀티체어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  
리 쉽게 변형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매  
일(art@hankyung.com)로 신청  
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event.hankyung.com)를 참조하  
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와  
이드벤처-어린이용 터치펜 모션  
펜키트 070-7603-0492 △홀바이  
오-담그네 발효용기 (053)565-6661  
△에브리넷-물걸레 로봇청소기 예  
브리넷 (031)759-8917 △아이쿠우-  
크라크라 3in1 멀티체어 1644-1918

◆경쟁 치열한 유아가구  
아이쿠우는 유아용 폴더메트와 소파, 인  
디언 텐트 등을 주로 생산한다. 자녀가 1-2  
명인 부모들이 아동용 제품은 친환경 고  
품질 제품을 구입할 것이라 생각에서 유  
아용 가구 제조업체를 세웠다. 대전 유성  
구 충남대산학협력센터에 사무실과 물류  
센터를 두고 국내와 중국에서 외주 생산  
하고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에 나서며 나름대로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있지만 유아가구시장의 경쟁은 치열하다.  
인 대표는 “유아용품업체들은 거액을 들  
여 유명 연예인 자녀가 나오는 예능 프로  
그램 등에 간접광고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며 “소비자는 누가 쓰는 제품이라고  
무턱대고 선택하기보다 소재의 안전성과  
각종 인증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전=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센터 설립 産·官·學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원희복 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연내 인공지능  
(AI) 신약 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활용할 수 있  
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해 신약 개  
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한국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취지다.

원희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사진)  
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약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 같  
은 계획을 밝혔다. 센터를 통해 산·관·학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기술  
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AI가 신약 개발 초기 단계인  
후보물질 발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배영우 한국제  
약바이오협회 4차산업담당 전문위원  
은 “평균 10년인 신약 개발 과정에서  
5000~1만 개의 후보물질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AI는 방대  
한 데이터를 취합·분석하고 과거  
학적 근거를 통해 후보물질을  
추려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임상시험을 최적  
화하고 부작용과 작용기  
전도 예측할 수 있다”며

“화이자 머크 등 다국적 제약사는 이미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나섰다”고 덧붙  
였다.

협회는 센터 설립을 위해 실무자 20여  
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회원사  
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다. 배 전문  
위원은 “매출액 기준 상위 40%의 회원  
사들이 센터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며 “장기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과 연결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정부에 예산 지원도 요청  
할 계획이다.

협회는 아이메디신 최고경영자(CEO)  
인 배 전문위원을 비롯해 강수형 동아에  
스티 부회장, 허경화 쿼타일즈 IMS 수석  
고문, 최주현 브릿지바이오 창업자를 전  
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문가를 영입해  
글로벌 진출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의 성장에 가장  
유리한 건 오픈이노베이션”이라며 “국  
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에 기  
술을 수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  
니라 공동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국을 신약 개발 허브로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기자  
ace@hankyung.com



# 안개길 때 좀 더 선명하게 촬영

에스카 ‘필터 교체’ CCTV 개발

안개 스모그 등으로 잘 보이지 않는 폐쇄  
회로TV(CCTV) 화면을 자동으로 보정하  
는 기술이 개발됐다. 에스카(대표 정태  
웅·사진)는 시정거리에 따라 자동 필터  
체인지 기능을 적용한 CCTV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태웅 사장은 “산불감시시스템 사업  
을 시작하면서 겪은 애로사항 중 하나가  
안개, 스모그, 황사로 산불을 제때 감지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다”며 “이를 바탕  
으로 ‘저시정(低視程) 영상 개선 솔루션’  
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솔루션  
은 에스카의 특허받은 필터를 카메라에  
장착함으로써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영상의 특정 파장 대역을 수동이나 자동  
으로 차단해 빛의 산란을 막아주면서 비  
교적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고 설명했다. 에스카는 이 제품이 중소기  
업정 성능인증, 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됐고 안  
동시청에 처음 납품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 유행서 연구소장은 “고가의



적외선 카메라를 쓰지 않고 기존 CCTV  
카메라를 활용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 필터 기술을 접목시켜 저가로 구현한  
데 의미가 있다”며 “하드웨어 필터는 빛  
의 산란이 적은 특정 파장 대역 위주로 투  
과시켜 선명한 영상을 구현하고, 소프트  
웨어 필터는 저시정 영상개선 알고리즘  
을 적용해 가장자리 손상 등 영상 품질  
저하 없이 효율을 향상시켰다”고 설명했  
다. 그는 “인도에서 기자 운행 시 안개길  
역 통과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카메라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해 기술  
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협’ 구성  
정부·업계대표·전문가 등 10여명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대표 및 전문가  
들과 상설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중  
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청  
정책장,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업종별  
협회·단체장 등 업계 대표 7~8명, 대학  
교수까지 10명 안팎으로 ‘소상공인 정  
책소통 상설협의회(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주부터 주 1회 모인다. 이 자리에선 소  
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제도 개  
선점 등을 논의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할 예  
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정책협의회와는 별도  
로 이번주부터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  
업청별로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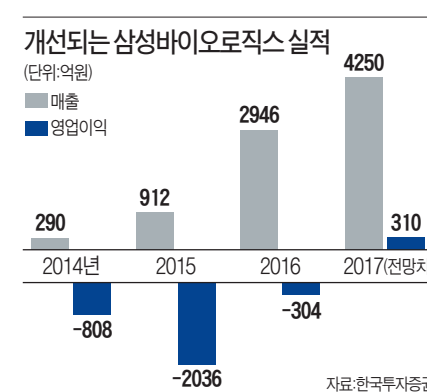
#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영업흑자 낸다”

2분기엔 85억 영업흑자 ... 올 3건 신규 수주, 누적 수주 32억 3천

바이오의약품 수탁생산(C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분기에 적자  
로 돌아섰다. 하지만 바이오의약품 수탁  
생산 수주가 잇따르고 있어 올해 정사이  
후 처음으로 영업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  
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4일 개별재무  
제표 기준으로 2분기에 매출 632억원, 영  
업흑자 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  
분기에는 매출 1076억원과 34억원의 영  
업이익으로 냈다. 설립 6년 만에 이뤄낸  
분기 영업흑자였다.

2분기 영업적자폭은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시행한 1, 2공장  
의 설비 유지보수로 출하량 감소가 예고  
됐기 때문이다. 순이익은 지회사 삼성바  
이오에피손의 개선에 따른 지분법 손



실 축소로 전 분기 대비 110억원 개선된  
22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적의 바로미터인 수주는 증가하  
고 있다. 올 들어 세 건의 신규 수주 계  
약을 체결해 누적 수주는 32억달러(약  
3조5700억원)에 달한다. 로슈 BMS 등

8개 다국적 제약사의 11개 바이오의  
약품 수탁생산을 맡았다. 15개 이상의  
회사와 30여 개 제품에 대한 협상도 하  
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 영역을  
CMO에서 수탁 개발 및 생산(CDMO)으  
로 확대 중이다. 세포주와 공정 등을 개  
발해 부가가치를 더 높일 계획이다. 최  
근 이를 위해 배양기 두 기의 생산 준비  
도 마쳤다. 각각 1000L 규모로 2공장에  
설치돼 있다. 또 18만L 규모의 3공장은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태한 사장은 “세계 최대 규모인 3공  
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수주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는 영업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기자 hms@hankyung.com

Advertisement for KwPower solar energy service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solar farm and text promoting '안정적 노후연금' (Stable Retirement Pension) of 250 million KRW per month for 99KW installations. It also lists various solar power plant projects in Gyeongbuk and Gyeonggi-do, such as '태양광 발전소 분양' (Solar Power Plant Sale) with details on capacity and location.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KwPower and mentions its status as a UN member and a company with 100 years of trust.